

이클립스 2022-06 버전에서
한글 깨짐 해결

A. 이클립스 2022-06 버전에서 한글 깨짐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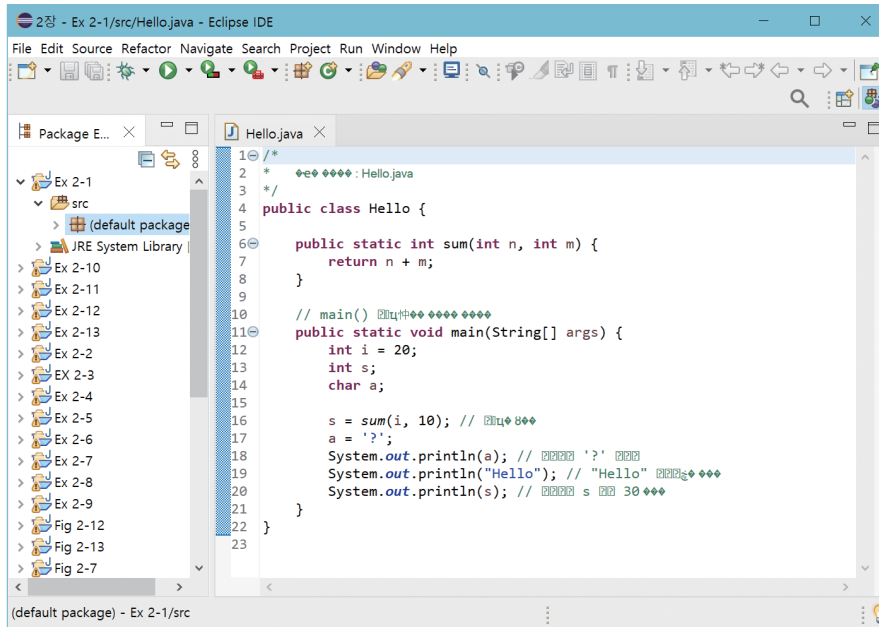
문자셋

모든 편집기는 사용자가 영문이든 한글이든 문자를 입력하면, 각 문자들을 이진수로 바꾸어 저장하고 인식하는데 이 이진수를 문자 코드라고 부른다. 한글을 비롯하여 모든 문자들은, MS949, utf-8 등 다양한 문자셋에 의해 정의된다. Windows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MS949 문자셋을 이용하며 리눅스는 utf-8 문자셋을 이용한다. 각 문자셋은 문자에 대해 서로 다른 이진수(코드)를 사용하므로, MS949 문자셋을 사용하여 저장된 파일이 utf-8 문자셋을 다루는 편집기에서 제대로 읽혀지지 않는다.

특히, 영어와 달리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과, 완성된 각 글자마다 문자 코드를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한글 문장이 완전히 다른 코드로 인코딩되므로 더욱 문자셋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제 소스의 한글 깨짐

홈페이지에는 2개의 버전으로 자료 압축 파일이 제공되는데, MS949 버전은 2021-12월 이클립스를 위한 것이고, utf-8 버전은 2022-06월 이클립스를 위한 것이다. 2021-06월 이하의 이클립스 버전을 사용하는 독자들은 MS949 버전의 자료를 다운받고, 2022-06월 버전의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독자들은 utf-8 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것은 2021-06월 이하의 이클립스는 사용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저장할 때 MS949 문자셋으로 저장하고, 2022-06월 이클립스는 utf-8 문자셋으로 저장하도록 디폴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의 편리를 위해 2개의 버전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그런데 만일 2022-06월 이클립스 버전을 사용하는 독자가 MS949 버전의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면, 문자셋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림 1\]](#)과 같이 한글이 깨지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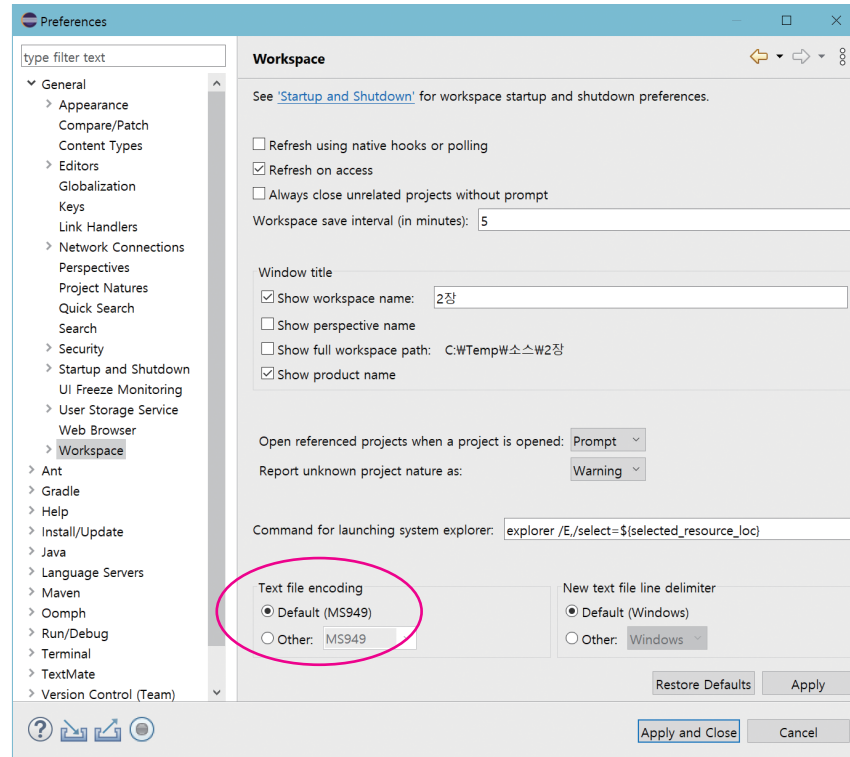


[그림 1] 2022-06 버전 이클립스에서 예제들의 한글이 깨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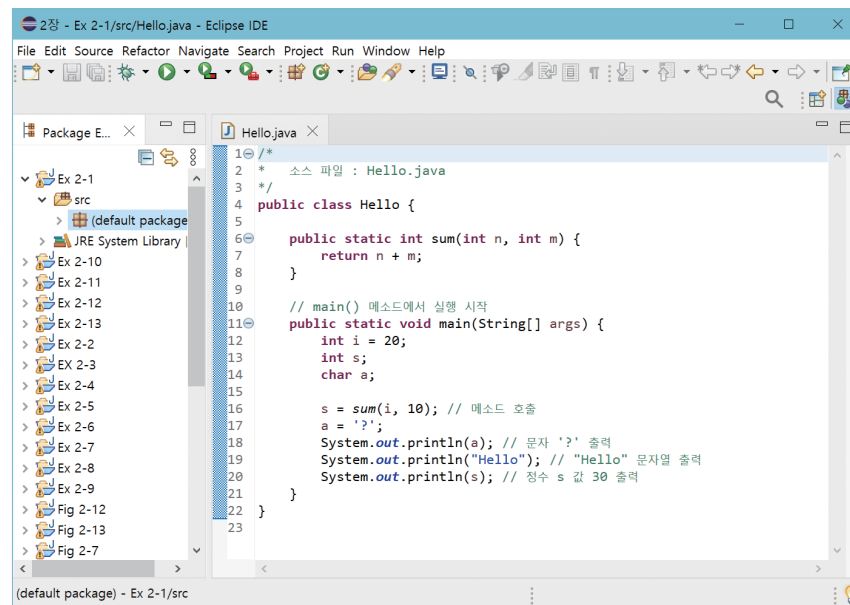
한글 깨짐 해결

한글 깨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이클립스의 디폴트 문자셋을 바꾸어주면 된다.

이클립스는 편집기에서 사용하는 문자셋을 지정하는 메뉴를 두고 있다. Window → Preferences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2]와 같은 창이 출력되며, 여기서 다시 General → Workspace 메뉴를 선택하고, 하단부의 'Text file encoding'에서 'Default(MS949)'를 선택하고 Apply and Close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 [그림 3]과 같이 한글이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림 2] General → Workspace 메뉴에서 Text file encoding을 Default(MS949)로 선택



[그림 3] General → Workspace 메뉴에서 Text file encoding을 Default(MS949)로 선택

독자들은 어떤 이클립스 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디폴트 문자셋을 변경하여 한글 깨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2022-12월 이클립스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그림 2]**의 창을 출력하여 디폴트 문자셋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독자 스스로 문자셋을 설정하면 한글 문제를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바람직한 문자셋

현재 리눅스의 표준 문자셋이 `utf-8`이며, HTML이나 CSS 등 웹 문서의 표준 문자셋 또한 `utf-8`이다. 자바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른 문서를 편집할 때에도,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호환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utf-8`을 사용하기를 권한다.